산불 피해 현장 찾은 이재명 "나라가 책임지겠다"

경북 의성 고운사·대피소 등 찾아… 전날 안동 방문
이재민 호소에 "먹고, 입고, 자는 것 다 책임질 것"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순직한 기장 애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북 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만나 피해 지원을 다짐하고 위로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피해자의 분향소를 찾아 애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점곡체육회관을 찾아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오갈 데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재민들을 만나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성)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경북)도지사님도, 정부도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도 다 신경 쓰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봉사자들에게도 "너무 고생 많으시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건넸다.

이어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본 이 대표는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았다.

고 박현우 기장은 지난 26일 낮 12시51분께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설치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 온 국민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헌화·분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북 (산불 피해) 지원을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 소재 고운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산불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대형 누각 가운루와 연소전 등 사찰 주요 전각과 목조물이 대부분 소실됐다.

이 대표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사찰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화재 피해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며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에 타서 흩어진 누각 잔해와 깨진 범종을 보면서 "역사 최악의 큰 재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등운 스님은 이 대표에 "이제 불이 지나가서 큰 걱정은 없는데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며 "특히 안동과 의성은 이 대표 고향이니까 많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며 "지금 다른 인근 지역 전통 사찰도 위험 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청송·영양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진보문화체육센터와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민석·김병주·김태선·문대림·신정훈·이원택·이해식·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이 이날 이 대표 일정에 함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경북 안동다목적체육관을 찾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북 의성시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장주식·가상자산·'金테크'까지… 광주·전남 이색자산 눈길

동료의원들 같은 회사 장외주식 나란히 보유… '이벤트로 취득' 가상자산에 양어장 신고도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최근 값이 치솟은 금(金) 등 이색 자산이 눈길을 끌었다.

27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 결과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 시장은 한겨레신문 주식 200주도 갖고 있으며, 재산 신고한 비상장 주식 가액 총액은 200만원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도 931만8000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광주시의회 소속 심창욱·채은지·조석호 의원은 각기 본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창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다수 가졌으나 가액이 지난해 476만8000원에서 112만4000원으로 줄었다고 신고했다. 심 의원은 전북 소재 리조트 회원권(1470만원 상당)도 갖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해 약 436만1000원이던 가상자산이 올해 가격 상승으로 1067만2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신고했다. 조 의원은 1067만원 가량의 가상 화폐와 500만원 상당 합자회사 출자 지분도 갖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1억89만6000원 상당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자회사 출자지분도 3885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박수기 의원은 교육 관련 사업체 비상장 주식(1억8975만9000원), 임미란 의원은 어업회사법인 장외 주식(2398만4000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병내 남구청장 일가족은 보유 중인 금의 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 김 구청장은 본인이 보유한 금 75g의 가액이 지난해 대비 184만원 오른 920만원가량 된다고 신고했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와 두 아들도 각각 금을 113g과 188g씩 갖고 있다. 지난해와 보유량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최근 치솟은 금값 탓에 배우자는 금 자산만 1386만원 상당, 두 아들은 금으로만 재산 규모를 2306만원씩 신고했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00만원 상당 진주목걸이 등 보석류도 갖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자신과 배우자가 한 영농조합법인에 2억5000만원, 1억7900만원씩 출자했다고 신고했다.

김성 장흥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는 각각 비상장 주식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가액은 10만원 미만 소액에 그쳤다.

전남도의회에서는 김태균 의원과 강정일 의원이 나란히 같은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13억7368만2000원, 5억2757만원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나광국 의원과 서동욱 의원 역시 각기 1억1000만원, 5359만4000원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가상자산 4종도 소유하고 있지만 자산 가치는 0원이라고 신고했다.

박선준 의원은 가상자산이 6360만4000원 가량 되는데 추가 분할 매입·평가액 상승 영향으로 가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현창 의원과 한춘옥 의원은 특이하게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했다. 다만 두 의원 모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가액을 평가할 수 없거나 소액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 박원종 의원은 보유 자산으로 금 150g(192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최동익 도의원은 여수 소재 양어장 다수를, 모정환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낚시어선을 신고했다.

윤명희 의원은 전남 소재 리조트 회원권(1289만2000원)을, 임형석 의원은 충남의 한 콘도 회원권(3790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광산구의회 상임위, 제295회 임시회 중 '올해 첫 현장활동'

행정자치위·경제복지위 주요 현장 '5곳' 방문… 시설 점검 및 운영 현황 청취 등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제295회 임시회 중 올해 첫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25일 삼도동에 위치한 옛 유스호스텔 부지와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했다.

먼저 건물 노후화와 입지 문제로 인해 장기 방치된 옛 유스호스텔 부지를 돌아본 후, 시설이 광산구의 장기 발전 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치·민간임대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해서는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이용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현석 위원장은 "장기 표류 중인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오늘 제시된 부지 활용 방안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도 같은 날 소관 시설 3곳으로 현장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찾아 고려인 이주역사 해설 투어, 골목길 탐방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과정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성공 요인을 고찰한 후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참배하며 고려인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이어 4월 개관 예정인 하남다누리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살펴본 후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신속한 인력 채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동곡동 학생승마체험장을 찾아 운영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으며, 지역 청소년들이 승마 체험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고려인마을과 광산구 운영 체육·체험시설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며 "고려인마을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광산구 운영 체육·체험시설이 주민의 수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